

남 북 협 력 동 향

(2009. 12. 16 ~ 2010. 3. 22)

■ 북한, 경제관계법 제정·화폐개혁 후속행보 박차(12.1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 관계 법령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정해 부족한 재정확충과 시장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설된 ‘부동산 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한 부동산 사용료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 또한 새로 제정된 ‘물자소비기준법’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양을 줄여 극심한 물자 부족 상황을 완화해가려는 취지와 함께 일부 계층에서 만연한 ‘사재기’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남북교역 2년來 최고(12.17, 관세청, 연합뉴스)

-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 남북 교역 규모는 총 1억8천651만 달러로, 이는 2007년 11월(1억5천584만 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지난달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의 대청해전 발발에도 불구하고, 발발 엿새 만에 주 물용 규사를 실은 북한 화물선이 인천항에 접안해 물품을 내려놓는 등 남북교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2009년 11월 남북 교역규모

단위:천만불

반 출	반 입	교역규모
92,452	94,056	186,508

■ 신종플루 치료제 북한에 전달(12.18, 연합뉴스)

-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이 김영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남측인도단에 의해 18일 오전 9시쯤 개성 봉동역 앞에서 북측 인수단에 전달됨.
- 이날 전달된 치료제는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으로, 복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할 의사 2명과 약사 1명이 포함됨.
-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에 제공될 신종플루 치료제 1천명분과 신종플루 백신, 열감지 카메라 등이 함께 전달되었음.
- 이번 지원품목에 함께 포함된 10억원 상당의 손세정제는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달 중순께 북한에 전달할 예정임.

■ 미 재무부, '북한 금강은행' 주의리스트에 추가(12.20,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18일 미국 은행이 거래를 주의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금강은행'을 추가함.
-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의 불법금융행위 개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문에 포함된 북한 은행 리스트에 금강은행을 추가함.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주의를 촉구한 북한 은행은 압록강개발은행, 대동신용은행, 동북아은행, 조선합영은행 등 총 18개로 늘어남.

■ 유엔, 대북 인권결의 공식 채택(12.20, 연합뉴스)

- 유엔은 18일 총회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 인권결의를 공식 채택함.

-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3개국은 기권함.
- 이로써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를 채택한 셈이 됨.
-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어서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정부,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 지원(12.21, 매일경제)

- 정부는 관계자는 20일 “현재 소방차가 3대에 불과한 개성공단에 5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컨테이너식 가건물 형태인 현 소방서도 정식 소방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부는 지난달 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소방차 추가 지원과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51억여원을 의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소방차 5대를 확보해 개성공단 현지에 보낼 방침이며,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 형태로 소방서 건축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착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개성공단직원 ‘사전등록제’ 시행(12.30, 연합뉴스)

- 정부는 개성공단 직원으로 신분을 속여서 방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신원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사전 등록제’를 시행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로부터 직원 명단을 제출받았으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방북 신청자와 등록 직원 명단을 대조할 계획임.
- 한편 경기 파주시 의회 의원 4명은 지난 10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실상 관광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하고 돌아와 물의를 빚은 바 있음.

■ 북한, 1월 1일부터 외화 사용금지(12.31, 연합뉴스)

- 중국의 중앙TV(CC-TV)는 30일 날짜가 적히지 않은 북한인민보안성의 포고문을 인용, 북한이 1월 1일을 기해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 주민들은 상점과 식당 등에서 달러화, 유로화 및 일체의 외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들도 북한 원화로 환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함.

■ 북한 신년공동사설, 경제·대외관계 강조(1.1, 연합뉴스)

- 북한은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함.
- 사설은 “경공업과 농업 분야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전선이다.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외시장 확대와 대외무역 증대를 통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힘.
- 그 동안 최우선시 해왔던 ‘국방공업’은 정책분야별 소제목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만 간단히 언급됨.
-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근본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제안함.
-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함.

■ 북한, 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나(1.1, 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1일 북한 신년 공동사설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언급한 것은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힘.

*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 신문은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해설 기사에서, “북한인민들은 과거 영도자의 용단에 의해 북남수뇌회담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올해 공동사설의 북남 관계 언급은 여느 해와 달리, 많은 내용이 할애되어 있으며, 구체적 방향제시가 있다”며 강조.
-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캠벨, “북한, 6자회담 복귀 의향 암시”(1.8, 연합)

- 커트 캠벨 차관보는 7일 워싱턴 D.C.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난달 북·미 양자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관해 얘기를 나눴고, 북한 회담자들은 그런 프로세스에 복귀하겠다는 잠재적 의향(potential disposition)을 암시했다”고 말함.
- 캠벨 차관보는 “보즈워스 대표 등은 당시 ‘다음 순서는 6자회담을 여는 것이고, 6자회담이 유일한 문(door)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전함.
-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또 다른 대화(제2차 북·미 대화)가 있을지와 같은 전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김양건 만날 용의”(1.8, 조선일보)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남북 대화의 공식 창구이므로,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째 북핵 문제, 둘째 인도적 문제로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함.

■ 김정일 “쌀밥·고깃국 유훈 지키겠다”(1.9,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주민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신문은 또한 “지금 우리 당은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호소함.

■ EU, 북한 장성택·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1.11, 조선일보)

- EU(유럽연합)는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 장관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북한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 EU의 ‘규정’은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님.
-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으로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되었으며,
- 추가 대상에는 장성택, 김영춘 이외에도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6명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및 실세들이 포함되어 있음.
- EU는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는 별개로 EU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바 있음.

■ 북한, 정전협정당사국 평화협정회담 제의(1.12,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1일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힘.

- 성명은 “조선반도에 일찍이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다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조미(북미)회담처럼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 될 수도 있다”고 밝힘.
- 또한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4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해 언급한 것은 처음임.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하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어 “평화협정 논의에 앞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부함.
- 성명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 공동 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만다”고 밝힘.

■ 연탄나눔운동, 연탄 10만장 북한에 전달(1.14, 연합뉴스)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14일 오전 북한 개성지구에 ‘사랑의 연탄’ 10만장을 전달함.
- 2004년 10월부터 시작한 연탄 보내기 운동은 현재까지 940만장이 전달돼 다음달말 개성지구와 금강산지구에 연탄을 전달하면 1천만장을 돌파하게 됨.

■ 북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하자”(1.15, 조선일보)

- 북한이 1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6~27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함.

- 통지문은 “금강산·개성 관광이 1년 6개월이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실무접촉’을 가지자고 제의함.
- 통일부는 회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이 직접 회담을 정식 제안하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우리 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안전보장 제도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에서 현물로 바꾸려는 입장임.

■ 2009년 남북교역액, 16억 6천만 달러(1.18, 관세청)

-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남북교역액은 1,666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07년 1,797백만 달러, 08년 1,820백만 달러
- 지난해에는 북한 핵실험 등 악재가 많았지만, 4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됨.

2009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반 출		반 입		교역금액	교역수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9	41,271	732.6	37,127	933.5	1,666.1	△200.8

■ 북한, ‘남한에 보복성전, 옥수수 1만톤은 수용’(1.18, 조선일보)

-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가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남한 정부의 「북한내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악랄한 체제 전복 내용’이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와 남한 당국자들에 대해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 성명은 “남측 당국이 사죄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한이)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고 밝힘.

-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98년 개헌을 통해 최고 권력기구로 부상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앞서 일부 국내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북한내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최근 보완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통일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우리측에 위협적 언동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힘.
-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북남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보였던 초강경 논조를 배제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신문은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남 관계 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는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북한은 이날 적십자중앙위원회(위원장 장재언) 명의로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제안했던 옥수수 1만톤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냄.

■ 남북,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1.22, 조선일보)

- 남북은 1월 19~20일 개성에서 진행된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2월 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남측은 실무회담에서 통행·통관·통신 등 3통(通) 문제 해결과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 북측은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실무회담 의제결정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음.
- 이번 평가회의에서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 북측은 국제적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보전 등을 내세워 '공동시찰 해외공단(베트남, 중국 소재)' 수준의 임금 인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남측은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그보다 높지 않다고 반박하였음.
- 이번 평가회의에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 북한, '3통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제안(1.22, 연합)

- 북한은 22일 우리측에 전통문을 보내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26일 개성 남북 협력사무소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함.
- 3통 허용은 "자유로운 통행, 신속한 통관 절차,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용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지난 2007년 제7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합의됐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세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 군사실무회담도 2008년 10월 2일 대북 전단살포 문제 협의를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임.
- 국방부는 25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를 본 후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회담 개최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힘.
- 또한 정부는 25일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1월 14일 제안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의 날짜를 북측이 제시한 1월 26일보다 늦춰 2월 8일로 수정 제안함.

■ 개성병원 개원 5주년, 북한 근로자 20만여명 진료(1.22, 연합)

- 2005년 1월 개원한 개성공단의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이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아 누적 진료환자가 20만명을 돌파함.
-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 의료봉사단체인 '(재)그린닥터스'의 개성병원 진료 환자수는 개원 첫해인 2005년에 6천169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만9천724명과 7만1천307명으로 꾸준히 늘어남.

- 그린닥터스는 또 지난 5년간 51억9천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개성병원과 개성시 인민병원 등에 지원하였으며, 후원금과 그린닥터스 회원들의 회비로 북측 의료진 21명에게 매달 4천500달러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9만명 돌파(1.22, 연합뉴스)

- 22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에 따르면, 오라스콤과 북한 당국이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 ‘고려링크’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9년말 기준으로 9만1천8백명에 이름.
- ‘고려링크’는 2008년 12월부터 3G 방식의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라스콤은 4년간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정부, 민간대북지원단체 ‘장미회’ 평양 방문 승인(1.27,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안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27일 대북의료지원단체인 ‘장미회’의 평양 방문을 승인함.
- 통일부는 해안포 사격이 있었지만 대북인도주의 사업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방북하는 것이어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이번 장미회의 방북은 올해 첫 민간 교류차원의 평양 방문임.

■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3월 인터넷에 사업공개(1.28,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설립 방침을 밝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오는 3월 인터넷에 사업계획을 공개할 예정임.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투자업무를 수행할’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이 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임.
-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는 재중동포인 박철수씨가

선출되었으며,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노동당 유관부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대풍국제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됨.

■ 이 대통령, “연내 김정일 안 만날 이유없어”(1.30, 연합뉴스)

-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 대통령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함.
- 또한 3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랜드바겐(북핵일괄타결) 제안과 관련, “북한 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는 6자회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시켰지만, 우리는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했다”며,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 답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함.

■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2.1, 연합뉴스)

- 남북은 1일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열린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전회의를 가졌지만, 현안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
- 남측은 기조 발언에서 ‘전자출입체계’를 통한 통행 절차 간소화 등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 북측은 3통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숙소 건설과 임금 등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함.
- 양측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임.

- 이번 개성공단 실무 회담은 올해 첫 남북 당국간 공식회담으로서 김영택 통일부 상근 회담 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나섬.

■ 북한, 로버트 박 석방(2.6, 연합)

- 무단 입국 혐의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있던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가 6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해당 기관에서 로버트 박을 억류하고 조사한 결과, 그가 조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들어오게 되었으며,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심심하게 뉘우친 점을 고려해 관대하게 용서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힘.
- 박씨가 석방된 것은 억류된 지 43일만으로, 작년 3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여기자 2명은 억류 140일만에 석방 된 바 있음.

■ 중국 왕자루이, 평양 방문(2.7, 연합)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6일 오후 평양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하였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자루이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방북 이틀째인 7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과 회담했다”며,
- “회담에서 쌍방은 당 활동 상황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한편 왕자루이 부장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바,
- 작년 12월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와 미국의 선(先) 6자회담 복귀 요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왕 부장은 2004년 1월과 2005년 2월, 2008년 1월, 2009년 1월 등 방북 때마다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고, 특히 작년 김 위원장이 와병에서 회복된 이후 첫 해외인사로 왕 부장을 만난 바 있음.

■ 남북, 금강산·개성 관광 실무회담 개최(2.8, 연합)

- 남북은 8일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약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관광 재개의 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보임.
-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기초발언을 통해 박왕자씨 피격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북측은 '3대 과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관광을 재개할 필요성을 주장함.
- 북한은 진상규명과 관련 '사건 당시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 해간 것으로 충분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며,
- 작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에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재발방지책 및 신변안전 보장 방안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 양측은 상대의 기초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함.
- 북측은 이번 실무 회담에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등 3명이 참석함.

■ 북한 모래 수입 11개월 만에 재개(2.8, 연합)

- 동해안을 통한 북한 모래 수입이 11개월 만에 재개됨.

- 북한 모래 수입업체인 울산시 '수양광업(주)'(대표 박성열)의 688t급 화물선 태천 1호는 북한 장전항 앞바다에서 채취한 해저 모래 1천 390여m³를 싣고 8일 울산항에 도착함.
- 동해안을 통한 모래 수입은 지난해 3월 북한의 동해안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바 있음.
- 수양광업(주)은 올 4월 30일까지 북한 모래를 수입하기 위한 선박 운항에 대해 통일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모두 4만1천760m³ 규모의 북한 모래를 수입할 계획임.

■ 北 김정일, 왕자루이 면담(2.9,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월 8일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왕 부장이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와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과 친선적인 담화를 했다고 보도
-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왕 부장과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지를 다시 내 보이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
- 이날 면담에는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류사오밍 주북 중국 대사가 배석했으나 북핵문제와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배석하지 않았음.

■ 北 김계관 외무성 부상, 고려항공편으로 방중(2.10, 연합뉴스)

-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왕자루이 부장과 같은 고려항공편으로 중국을 방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김계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우다웨이 중국 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으며,

- 방문 기간 쌍방 사이에 북중관계와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했다고 언급
- 이번 방문에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근 미국국장이 동행했으며
- 북한은 이번 북중회담 결과를 토대로 3월 중 김 부상을 미국에 파견해 제2차 북미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北 조선대풍그룹, 외자 100억불 유치(2.15, 연합뉴스)

- 북한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연간 북한 GDP(150억불)의 70%에 육박하는 100억불 이상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짐.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중국의 대형은행 및 다국적 기업들과의 대북 투자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며 3월 중순 평양 국가개발은행에서 투자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해짐.
- 이번에 도입될 외자는 평양~신의주 철도, 중국 투먼~라선특별시 철도,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연관된 주택 건설,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임.
- 왕자루이 부장 방북 때 대풍그룹을 통한 중국 자본의 투자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3월 중 발표될 투자액의 60% 이상은 중국 자본인 바, 이번 대북 투자를 중국 정부가 주도했음을 시사
- 이번 중국의 대북 투자 주선은 미국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직접 투자*의 형식으로 북한에 대규모 외자가 수혈되면, 북한이 요구해 온 6자회담 복귀의 양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대북제재 해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UN 안보리 결의 1874호**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도 포함. 다만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금융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12 June 2009)

19.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redit institutions not to enter into new commitments for grants, financial assistance, or concessional loans to the DPRK, except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 directly addressing the needs of the civilian population, or the promo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lso calls upon States to exercise enhanced vigilance with a view to reducing current commitments;

■ 북한 대남경제협력기구 ‘민경협’ 존치 확인(2.17, 연합뉴스)

-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대남 경협을 총괄하는 민경협은 작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직후 내각 인선 관련 발표에서 거론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통일부는 17일 “여러 과정을 통해 민경협이 내각의 성급(장관급) 기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내각의 별도 직속기관으로 존치되고 있다.”며,
- 개성공단을 맡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금강산 관광 사업 당국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유명환 장관, 6자회담 조만간 열릴 것(2.18, 연합뉴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자 회담 전망과 관련,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열리긴 열릴 것”이라고 밝힘.

- 유 장관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6자 회담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 ‘6자회담 재개를 확신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그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덧붙임.

■ 북·중 접경 리 하산서 6.7 강진(2.18, 연합뉴스)

- 2월 18일 오전 9시 13분경 북한, 중국과 접한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6.7리히터의 강진이 발생함.
- 미국 지질조사국은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진의 강도가 핵실험에 따른 진도 규모를 훨씬 넘는 수준이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작다”고 덧붙임.
- 북한지역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짐.

■ 독일 NGO, 북한에 식량 및 태양열 온실 지원(2.19, 연합뉴스)

- 독일의 국제 NGO ‘저먼 애그로 액션’이 3월 중순경 북중 국경을 통해 식량 625t을 북한에 보낼 예정임.
- ‘저먼 애그로 액션’은 독일 외무부 산하 경제협력개발부에서 제공한 40만 유로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한 뒤 늦어도 3월 13일까지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임.
- 또한 이 단체는 북한 도시 주민들의 겨울철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평양, 순천 등에 모두 15개의 태양열 온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사업에는 모두 15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태양열 온실은 대규모 채소 수경재배와 농업용수 및 비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함.

■ 클린턴, “6자회담 재개 진전 징후 고무적”(2.27,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2월 26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장관급 전략대회를 가진 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궁극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북한의 결정에 달렸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이 회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진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성 김 북핵특사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파트너들이) 공동노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고 강조함.

■ 북한, “불법 입국 남한 주민 4명 억류”(2.26, 조선일보)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26일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억류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북한에서는 억류중이라는 남한 주민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와 신원을 파악 중임.
- 통일부는 확인 결과 개성과 평양 등에 체류 중이었던 우리 국민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힘.
- 국방부도 최전방에서의 월북 흔적이 없다고 밝혀, 당국은 북·중 국경을 통해 민간인이 월북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음.

■ 중국, 4월부터 북한 단체관광 전면 허용(2.28, 연합)

- 중국은 오는 4월 12일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기로 함.
- 중국 당국은 북한 관광에 나서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 열풍이 불자, 2006년 2월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9년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한적으로 북한 관광을 허용한 바 있음.

■ 대한적십자사, 대북 의약품 전달(2.27, 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는 2월 27일 14억원 어치의 의약품을 인천~남포 정기 화물선에 실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전달함.
-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의약품 전달은 2009. 10. 26일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전통문을 통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의약품을 지원할 것임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힘.
- 지원되는 의약품은 지난해 녹십자 등 국내 22개 제약회사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주사제, 진통제, 영양제, 항생제 등으로 구성됨.

■ 보즈워스, “6자회담 상당히 빨리 재개되기를 기대”(3.1, 연합뉴스)

- 아시아를 순방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이 ‘상당히 빨리(fairly soon)’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2월 27일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일본 도쿄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포함해 5개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또한 “우리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일을 진전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동의한다면 6자회담은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전 추가 북·미 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
 - “물론 우리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갖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목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있다.”고 강조, 가급적 추가 북·미 접촉 없이 6자회담으로 직행하길 원한다고 밝힘.

■ 개성공단 분야별 실무접촉 계속키로(3.3, 연합, 통일부)

- 3월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의 논의를 위해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남측은 3월 2일 실무접촉에서 △전자출입체계 도입과 1일 단위 통행제 시행 △통관에서 ‘선별검사’ 방식 도입 △인터넷과 이동통신 제공 등을 제안함.
- 반면 북측은 3통 문제 협의 방향에 대해 △6.15/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함
- 특히 북한은 3통 관련 설비, 자재, 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분야별 실무 접촉 일자는 추후 상호 연락하여 확정기로 함.

■ 북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안하면 사업계약 파기”(3.4, 연합)

-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4일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이미 천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 될 것”이라며,
-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남한 정부가 요구한 ‘3대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기회에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최고 수준에서 담보해줬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거듭 확답을 줬다.”면서,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도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 침입했다가 일어난 불상사이며 이미 여러차례 구체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함.

■ 김정일, 경제 군중 집회 첫 등장(3.6, 연합)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일 현대화 공사를 끝내고 16년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함경남도 ‘2.8비날론 연합기업소’의 준공 경축 군중대회에 참석함.
- 김 위원장이 경제분야의 군중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언론은 2.8비날론 재가동을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만든 것을 지키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 ※ 비날론은 무연탄에서 얻은 카바이드 원료로 만든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북한에서만 생산된다는 뜻에서 ‘주체섬유’로 부르기도 함.
- 1961년 5월 준공된 2.8비날론 연합기업소는 연간 5만톤을 생산 가능했지만, 생산체계 및 시설의 노후화와 원료 부족으로 ‘고난의 행군’ 시작 시점인 1994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음.

■ 북한, ‘석탄법’ 제정(3.7, 연합)

- 북한이 석탄의 탐사와 공급, 이용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석탄법’을 제정한 것으로 7일 알려짐.
- 이는 북한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다룬 ‘석탄법’ 법규해설 시리즈에서 확인됨.
- 석탄법의 제정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로 원유와 다른 에너지원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석탄 탐사 및 탄광 개발, 석탄 생산과 이용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 교류,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방침도 적시되어 있음.

■ 중국, 북한 라진항 10년 사용권 얻어(3.8, 연합뉴스)

- 중국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지린(吉林)성이 10년간 북한 라진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밝힘.

* 라진항: 북한의 라선(라진+선봉)특별시에 있는 항구

- 중국은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라진항을 자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경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해왔음.
- 운수 능력이 부족한 중국의 연변지역은 라진항을 이용해 지린성의 우수한 석탄자원을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태평양 지역과의 물류 교환도 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서 북한 노동당 김영일 국제부장이 중국의 동북 3성을 방문하여 지난해 중국이 확정 한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라진 진출을 가로막는 난제 산적(3.9, 연합뉴스)

- 중국의 라진항 진출에 선행돼야 할 접근 도로 개설과 관련, 2년째 북·중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함.
-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따낸 창리 그룹의 라진항 부두 개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승인이 2009년 11월에야 이뤄짐.
- 중국은 건설비용을 절약하고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꾀하여 두만강 변과 동해안 선을 따르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희망하나,
- 북한은 교역 물량 확대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기존 원정리-라진항 도로의 고속도로화를 요구하며 반대함.
-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행위를 두고 주변국도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상태 강화와 화폐개혁의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외자유치 또한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음.

■ 北, 살인적 인플레 지속, ‘국영상점’ 인기(3.9, 연합)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북한에서 화폐개혁 이후 살인적인 인플레가 계속되자 국정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국영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국영상점인 평양 제1백화점은 가루비누, 담배 등을 국정가격에 한정 판매하고 있어 평양 주민들이 이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음.
- 살인적인 인플레로 평안남도 순천, 평성 등에서 아사자가 발생했고, 공장이나 기업소의 무단 결근자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짐.
- ‘좋은벗들’은 북한의 도 단위 기관의 간부들이 “현 국면을 헤쳐 나가려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전함.

■ 北, 美증원군 겨냥 중거리 미사일 사단 창설(3.9, 연합)

- 북한이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미사일지도국 산하로 신형 중거리미사일 사단을 창설한 것으로 9일 확인됨.
- 이 사단은 3천km 이상의 신형 IRBM을 작전 배치 및 관할하는 임무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신형 IRBM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전략화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됨.
- 신형 IRBM은 주일 미군기지 뿐 아니라 광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 전시 증원전력과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7함대 전력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北,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으로 전일춘 선임(3.10, 연합)


- 북한 국가개발은행은 3월 10일 첫 이사회를 갖고 ‘국방위원회 대표’인 전일춘 노동당 39호 실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함.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와 함께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힘.

- 또한, 조선신보는 북한은 지난 1월 설립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식량문제,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 등 6개 분야를 위해 ‘경제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임할 수 있는 전일춘 실장이 책임자로 임명됨으로서 외자 유치 등의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피스웍스(PEACEWORKS)’(3.10, 연합뉴스)

- 개성공단 생산품의 공동 브랜드인 ‘피스웍스’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이 상표가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임.

	<p>※ ‘피스웍스’는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화해에 기여하는 개성공단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나무를 형상화한 로고를 담고 있음.</p>
--	---

- 통일부는 그동안 독자 브랜드를 갖지 못해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개성공단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 하였음.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피스웍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 중이며, 업체를 선별해 동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계획임.

■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 5차 개정(3.15, 통일부,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월 27일 나선경제무역지대법 5차 개정을 통해 외국투자자는 물론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조선동포’에 대해서도 나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선동포들에게 투자기회 부여 △국가가 특별하게 장려하는 부문에 대한 기업 소득세를 10%로 인하 △투자자의 투자 형식과 기업 관리 방법의 자유

로운 선택권 보장 △외국인 기업·지사·대리점 창설 운영에 대한 내각 승인제 폐지 등이 있음.

- 신설된 8조의 ‘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 조항은 남한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미로 보여지나,
- 높은 규제와 체제의 벽으로 대북 투자에 곤란을 겪는 국내 기업이 자유 지대법 일부 개정으로 섣뚱 투자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제8조(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

공화국령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중략)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 북한, 시장 폐쇄·텃밭 금지로 식량 사정 악화(3.16, 연합뉴스)

-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이 장마당을 폐쇄하고 텃밭을 금지한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농업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며,
- 군대에 의한 농민 갈취와 화폐개혁 실행을 위해 부과된 규제와 함께 올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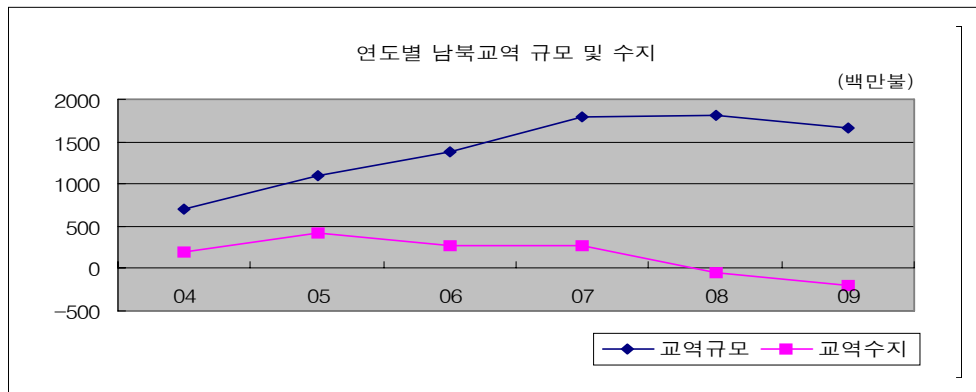
■ 北무역상들, 단속강화 불구 외화 밀거래 계속(3.16, 연합뉴스)

-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상들은 여전히 외화 밀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조선광선은행을 통해서만 외화 송출을 할 수 있게 하여 외화 유통을 당국의 통제 아래에 두려 하고 있음.
- ※ 조선광선은행은 조선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2004년 설립, 단동에 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관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무역상들은 은행에 입금된 외화는 다시 인출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있음.
- 또한, 현금거래는 무역 거래액 은폐 및 축소, 자금 은닉에 유리하여 북한 당국의 외화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북·중 무역상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편을 통한 대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2월 남북교역 79만弗 흑자, 전년 동월 대비 52%↑(3.17, 연합뉴스)

- 17일 관세청은 2월 남북교역 규모는 153.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1% 증가하고, 2월 남북교역 수지는 79만 달러 흑자였다고 밝힘.
- 남북교역 규모는 2004년 이래로 2008년 18.2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2009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올해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남북교역 수지는 2008년 9월 이후 2009년 12월을 제외하고 연속 적자였으나, 올해 2월에 흑자를 보임.



- 올해 남북교역 규모는 국내외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상승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무역협회가 15일에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101개 남북 교역업체 중 44.6%가 올해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

■ 화폐개혁 주도 박남기 전 계획재정부장 총살설(3.18, 연합)

- 북한의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지난주 평양에서 총살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구권 100원 대 신권 1원’ 비율로 화폐교환을 단행하였으나 시장폐쇄, 외화사용 금지 등의 ‘反시장 조치’를 취함에 따라 물자의 유통경색과 식량난이 급격히 심화되었음.
- 이에 따라 화폐개혁의 실패로 민심이 악화되고 김정은 후계체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자 모든 책임을 박 전 부장에게 씌워 반혁명분자로 처형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통일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중임.

■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사의 표명(3.18, 연합)

-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18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음.
- 통일부 차관 출신인 조 사장은 2008년 8월 현대아산에 취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왔음.
- 조 사장은 구조조정 및 임직원의 급여 삭감 등의 자구책을 펼쳐왔지만 관광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사업 정상화를 이루지 못함.

■ 정부, “금강산 회담 先제의 없다”(3.22, 연합)

-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함.
- 아태위는 “3월 25일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힘.
- 또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기존 계약을 무효화 할 것”이며,

-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하여 先제외는 없으며 북측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정부는 북측에 관광재개 3대 조건인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회담을 먼저 제의하지 않을 방침임.
- 반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 北,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관심(3.22, 연합)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가 새달 9일 평양에서 열림.
 - ※ 최고인민회의는 1·2차 전체 회의로 구성되는 북한의 입법기관임. 제12기 1차 회의는 2009년 4월에 개최되었으며, 당시 헌법 개정이 이뤄져 김정일 3기 통치시대를 열었음.
-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는 전년도 예산·결산 및 새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임. 그러나, 화폐개혁의 부작용 등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및 외자유치를 중점으로 한 경제발전 방안이 집중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됨.